

유애리

런던예술대학교(UAL)에서 인테리어 및 공간 디자인(Interior and Spatial Design) 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유애리입니다.

공간과 사물이 지닌 구조적 내러티브와 물질성의 관계를 탐구하며, 쓸모를 다한 오브제에 새로운 시각적·기능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구 고유의 철제 프레임이 가진 선형적 실루엣을 패브릭의 유연한 질감과 결합하는 공간 디자이너만의 구조적 업사이클링 방식을 제안합니다.

구조의 기억(Memories of Structure)



본 작업은 당근마켓에서 발견한, 당장 버려져도 무색할 만큼 낡았지만 아름다운 곡선 디테일을 지닌 철제 의자와 빈폴의 소각 전 재고 의류를 결합하여 사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작가는 기존 의자가 가진 쿠션을 해체하여 사물의 본질적인 뼈대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패턴이 돋보이는 다크 그린 퍼(Fur) 스웨터와 선명한 형광 그린 코듀로이 바지 등 서로 다른 질감과 색채의 부드러운 의류 소재로 프레임을 감쌌습니다. 특히, 철제가 지닌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이 패브릭 표면 위로 그대로 살아나도록 바느질 작업을 거쳐 가구 고유의 구조적인 디테일을 강조했습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버려진 과거와 새로운 현재의 결합을 통해 순환경제가 지닌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